

전주 옛 4대문안 역사도심 회복 '속도'

시,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포럼·시민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천년의 역사가 축적된 옛 4대문안 역사도심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성 4대문안이 복원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전주관광 영역이 넓어져 신도시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16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전주부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도심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포럼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다양한 1970~80년대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종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및 옛길 등 다양한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전주부성 및 4대문 주변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존·관리·재생·활용방안 등을 찾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주부성 및 주변 지역 역사도심기본계획을 마련해온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전주역사도심은 오랫동안 전주의 정치·경제·행정 중심지로, 지역문화의 발전지 기능을 수행한 전주부성 그 외 주변지역을 의미한다"면서 "이곳은 천년역사도시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이 축적된 도시중심지이자, 전주와 전주사람의 고유한 정체성이 발현돼 오랫동안 도시의 정

체성을 형성된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년 고도로서 도시 전역의 역사유적이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망실·훼손돼 천년 고도로서의 위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역사도심을 회복하는 일은 도시의 역사성을 회복하는 일인 동시에 도시의 정체성을 가화하고 도시의 매력도를 증진시키며,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여 도시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후백제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천년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물론, 전주부성 성곽길과 일제강점기 전주도심 주요건물과 시대별 변천과정 등의 역사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가치에 대해 소개했다.

전주역사도심의 권역을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보존권역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중심의 전통문화권역, 전라감영부지 중심의 감영복원권역, 전라감영 부지 중심의 감영복원권역과, 전주성벽 및 사대문 일원의 기타권역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주요 자원과 보존·관리 방안, 활용방안 등도 제시했다.

시는 역사문화와 무형문화, 기록문화유산, 근·현대 건축물 조사, 옛길, 성곽 등에 대한 조사와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및 의견 간담회를 거쳐 수립한 역사도심기본



성탄 축하하는 원불교계의 현수막

16일 원불교계가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원불교이리교당에 게시한 모습이다.

획에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비전·발전방향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가 간직한 근·현대 건축물, 옛길, 생활유산 등 역사문화자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인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한옥마을로 국한된 관광객들의 관광동선도 역사도심까지 확대돼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근접한 전주부성 및 4대문 주변지역은 70~80년대 근대 문화유산과 종남문·전동성당·객사·전주부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면서 "전주부성 및 주변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과 관광자원 확대를 위해 역사도심부의 장기적인 비전 및 기본구상 마련과 계획적 관리를 위한 역사도심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김치 활용 한옥마을 음식관광산업화 포럼 개최

향토음식 추가 발굴 타당성·산업화·관광화 등 진행

전주시가 전주만의 특색 있는 김치를 활용해 음식관광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와 (사)한국음식문화협회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김치를 활용한 한옥마을 음식관광산업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올 한해 운영된 '2016 한옥마을 김치여행'에 대한 성과 등을 점검하고, 김치산업을 키워 새로운 음식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남규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을 좌장으로 △향토음식 추가 발굴 타당성 △산업화 △관광화 △교육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각 주제별 발제는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향토음식 추가 발굴 타당성)와 문운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산업화), 문두현 지역관광디자인마케팅센터 대표(관광화), 김인순 공간사회(교육)가 각각 맡는다.

또한 한경미 맛디자이너 대표, 김관수 한문화국제포럼(KCIF) 이사장, 유유순 한국음식문화협회회장, 안명자·김명옥 전주시 김치명가 선정자 등의 토론도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와 (사)한국음식문화협회회는 전주만의 특색 있는 김치를 활용한 음식 관광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주김치를 맛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2016한옥마을 김치여행'을 진행한 바 있다.

/김영재 기자

갑질 사범 290명 검거 9명 구속

전북경찰, 특별단속 기간 중... 거래관계 내 비리가 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이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추진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290명을 검거했다.

전북경찰청은 16일 갑질 사범 총 115건을 적발, 290명을 검거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으로는 거래관계 내 비리가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조직 내 부조리가 24.8, 사회일 반 부조리 24.4%, 공직비리 8.6% 등이 뒤이어 많았다.

단속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거래관계 내 리베이트 수수가 112명으로 가장 많은 갑질행위로 나타났다. 직장·조직 내 폭력·폭언이 23명, 사내 근로자 임금 등 착취 21명, 직장 내 강제추행 등 성범죄 13명, 공무원 금품수수 8명 등이

뒤이어 자주 발생하는 갑질행위로 나타났다.

갑질 행포의 가해자인 갑(甲)의 경우는 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율이 53.3% 가장 높았으며, 횡포의 피해자인 을(乙)의 경우 여성 비율이 48.7%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 위해 권력형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컨슈머 등과 같은 갑질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국민들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수업 중 눈 마주친 학생 때린 교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든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경 교실에서 수업하던 B군(16)과 눈이 마주치자 플라스틱 전선 보호덮개로 뺨을 때리고, B군이 버티면서 반항하자 목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고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김씨는 "B군의 뺨을 1회만 때렸을 뿐 목살을 잡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 역시 피해자 진술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공사 현장 출입구 주차된 승용차 부순 30대 집유

통행에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고급 세단을 부순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16일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7시경 전북 익산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가져와 차량 앞유리 등을 내리쳐 1,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